

經濟週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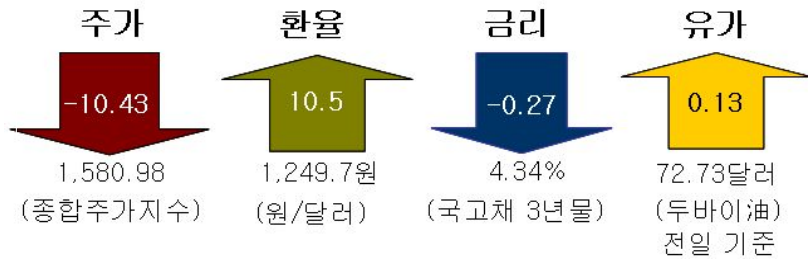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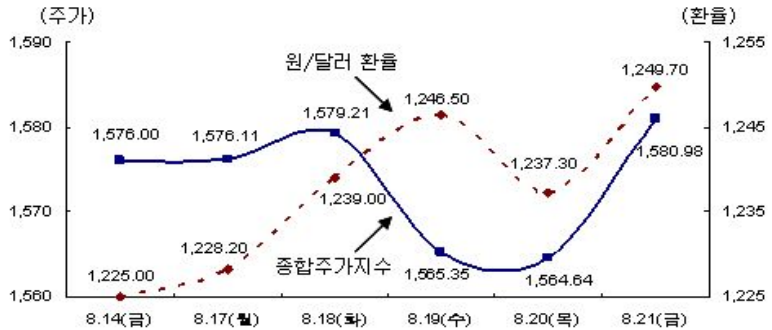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



■ 세계 경제 5대 이슈 : 불안과 희망 요인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8.14~8.21)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세계 경제 5대 이슈: 불안과 희망 요인	1
	주요 국내외 경제 지표	20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실 물 경 제 실 : 임 희 정 연구 위 원 (3669-4031, limhj9@hri.co.kr)
 : 김 민 정 연구 위 원 (3669-4457, kimmj@hri.co.kr)
 : 정 유 훈 선임 연구 원 (3669-4014, youhun@hri.co.kr)

Executive Summary

□ 세계 경제 5대 이슈 : 불안과 희망 요인

(세계 경기 회복 추이) 최근 세계 경제 동향을 보면 선진국, 아세안-5 등의 경제 회복 속도가 미미한 가운데 중국과 인도 경제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세계 경기 5대 현안) 향후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현안을 분석해 보면, 한국 경제는 네 가지 불안 요인과 한 가지 희망 요인에 직면할 것으로 평가된다. 네 가지 불안 요인은 '미국 경제 회복 지연', '내수 중심 중국 경제 성장 한계 봉착', '일본 장기 침체 재진입 우려', '유럽의 금융 불안 요소 상존'이다. 한 가지 희망 요인은 '중동 건설 시장 회복 가능성'이다.

첫째, 미국 경제의 본격 회복 시점이다. 미국 경제는 주택시장 회복 지연, 소비 침체 지속, 고용시장 부진 등으로 2010년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경기 회복권에 진입할 전망이다. 주택재고는 6월에 382만 3,000채로 여전히 위기 이전 평균치 220만 9,000채(2000년~2005년)보다 150만채 이상 많고 청산기간도 9.4개월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시장 역시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실업률은 2008년 9월에 6.2%에서 2009년 7월에 9.4%로 높아졌고 앞으로 10%대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실망실업자도 2008년 7월 46만 1,000명에서 2009년 7월에 79만 6,000명으로 늘어났다. 고용위축에 의한 소득감소로 소비 침체가 이어질 전망이다.

둘째, 중국 내수 경기 회복의 지속 여부다.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 등으로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중국 경제는 수출 부진과 자산 버블 형성 등으로 향후 경기 회복의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정부는 2009년 초 내수 부양을 지속하기 위해 가전제품과 자동차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같은 추가적인 내수 부양책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수출 부진과 자산 버블 양상이 심화될 경우에 중국의 내수 중심 경기 회복은 지속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수출은 2009년 7월에 -23.4%를 기록하여 4개월 연속 마이너스 20%대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내수 부양책으로 늘어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주식 시장 등 자산 시장에 몰려 자산 가격 버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 주식 가격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경제 위기로 주식가격은 2008년 11월 4일에 1706.7까지 폭락하였다가 2009년 8월 4일에 3471.4로 급등하였지만 8월 19일에는 2785.6로 다시 하락하였다.

셋째, 일본 경기의 장기 침체 가능성 여부다. 일본 경제는 최근에 들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재정 지출 여력 한계와 내수 부진이 심화될 경우 다시 장기 침체 국면에 진입할 우려가 크다. 수출은 2009년 6월에 전년동월대비 35.7% 감소하여 4개월 연속 40% 내외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 부진 등 내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재정적자는 2010년에 GDP 대비 10.2%로 미국과 G20선진국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또한 일본 정부부채도 2010년에 GDP 대비 226.2%로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유럽발 금융 불안이 실현되는가 하는 점이다. 유럽의 금융 불안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동유럽 국가 파산으로 서유럽 은행의 대출 자산이 연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은행의 금융 위기로 인한 추정 손실액은 유로지역 GDP 대비 4.8%에 해당하는 6,490억 달러에 달한다. 또한 동유럽 국가에 대한 총대출 규모는 1조 938억 달러인데, 오스트리아는 GDP대비 55.5%, 벨기에 23.0%, 스웨덴 21.4%의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총대출금의 78%인 866억 달러가 발틱 3국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유럽 국가들의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대출자산 부실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발틱 3국의 경제 상황 악화가 서유럽 은행 금융 불안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발틱 3국은 통화가치 변동으로 인한 위험 요인도 안고 있다. 이들 국가는 2008년 기준으로 GDP의 10%내외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통화절하를 통한 수출증대를 도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럴 경우 이들 국가가 서유럽 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 자산 상환 부담이 증가되어 국가 파산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다섯째, 중동 건설경기 붐의 재현 여부다. 원유 가격 상승, 프로젝트 추진 증가 등으로 중동 지역의 건설 시장 회복 가능성은 높은 상태다. 두바이 현물 가격은 2009년 2/4분기에 배럴당 평균 59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향후 세계 경기 회복세가 지속 될 경우 두바이 유가는 2010년에 연평균 배럴당 8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는 전망하고 있다. 건설 프로젝트 계약은 2009년 7월에 220억 달러로 31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의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과 과제) 세계 경제는 금융 위기가 재현되지는 않는다면 미국 등 선진국 경기가 본격 회복되는 2010년에 가서야 전반적인 회복 양상을 나타낼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 경기 회복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첫째, 세계 경제가 본격 회복될 때까지 내수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별로 다른 경기 회복 속도를 감안하여 수출 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유럽 금융 불안에 대비하여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 세계 경제 5대 이슈 : 불안과 희망 요인 >

세계 경기 회복 추이	
경기 회복 속도의 비대칭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 아세안-5의 경제 회복 속도가 미미한 가운데 중국 등 일부 국가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

세계 경제 네 가지 불안 요인과 한 가지 희망 요인		
불안 요인	미국 경제 회복 시점은 언제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격적인 경기 회복권 진입은 2010년에 가서야 가능 · 고용시장 부진, 주택시장 회복 지연, 소비 침체 지속이 원인
	중국 내수 경기 회복의 지속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 중심의 중국 성장은 한계에 봉착 · 수출은 6월에 -21.4%로 4개월 연속 20%대 감소 지속 · 유동성 유입으로 인한 자산시장 버블 형성 우려
	일본 장기 침체 가능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경기 회복 조짐이나, 장기 침체 재진입 가능성 존재 · 장기 재정 적자 누적으로 재정 지출 여력에 한계 · 소비 감소 등 내수 부진 심화
	유럽발 금융 불안의 실현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의 금융 불안 요소 상존 · 서유럽 은행의 동유럽 국가에 대한 대출 자산이 연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희망 요인	중동 건설 경기 붐의 재현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동 건설 시장 회복 가능성은 높은 상태 · 원유 가격 상승, 프로젝트 추진 증가

시사점과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경제는 2010년에 가서야 본격 회복 국면 진입이 가능하고 또 다른 금융 위기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임 - 따라서 국내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경기 부양 정책의 지속적인 실행으로 완전한 국내 경기 회복 유도 · 둘째, 지역별로 다른 경기 회복 속도를 감안하여 수출 전략 추진 · 셋째, 유럽 금융 불안에 대비한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 지속 강구

I. 세계 경기 회복 추이

○ 중국 등 일부 국가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나 선진국, 아세안-5의 경제 회복 속도는 미약함

- 빠른 경기 회복 국가 : 중국과 인도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기 회복 양상
 - 중국 : 소비 및 투자가 부진하고 무역 흑자가 축소되고 있으나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09년 성장률이 1/4분기 6.1%에서 2/4분기 7.9%로 상승
 - 인도 : 두 분기 연속 6%대 성장을 기록
 - 중동 : 2009년 성장률이 2.0%로 예상되어 상대적으로 양호
- 경기 회복 부진 국가 : 선진국, 아세안-5 등의 경기 회복 속도 미약
 - 미국 : 주택 경기 침체 지속과 소비 부진으로 2009년 2/4분기에 전기대비연율 -1.0%의 성장률을 기록
 - 유로지역 : 소비 부진과 수출 경기 둔화로 2009년 1/4분기에 전기대비 -2.5% 성장
 - 일본 : 소매판매 및 수출 부진으로 2009년 1/4분기 -3.1%, 2/4분기 0.9% 성장
 - 아세안-5 : 경제성장률이 2009년 -0.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주요국 경제성장률 >

(%)

		2007					2008					200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	2/4
경기 회복 양호	중국	13.0	13.1	13.8	13.4	11.8	9.0	10.6	10.1	9.0	6.8	6.1	7.9
	인도	9.1	9.7	9.2	9.0	9.3	6.1	8.6	7.8	7.7	5.8	5.8	-
	중동	6.3	-	-	-	-	5.2	-	-	-	-	-	-
경기 회복 부진	미국	2.0	0.1	4.8	4.8	-0.2	0.4	-0.7	1.5	-2.7	-5.4	-6.4	-1.0
	유로	2.7	0.7	0.5	0.6	0.3	0.7	0.7	-0.3	-0.3	-1.8	-2.5	-
	일본	2.4	0.9	-0.1	0.2	1.1	-0.7	1.0	-1.1	-1.0	-3.5	-3.1	0.9
	ASEAN-5	6.3	-	-	-	-	4.8	-	-	-	-	-	-

자료 : 한국은행, eurostat, BEA, 일본 내각부, 중국 국가통계국, OECD.

주 : 미국은 전기대비연율, 일본과 유로지역은 전기대비, 중국과 인도는 전년 동기대비임.

II. 세계 경기 5대 현안

1. 미국 경제의 회복 시점은 언제 인가?

- 고용시장 부진, 주택시장 회복 지연, 소비 침체 지속 등으로 2010년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경기 회복권에 진입할 전망

○ (현황) 소매판매, 수출 등의 증가세 전환으로 경제 성장률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 경제 성장률은 2009년 2/4분기에 전기대비연율 -1.0%를 기록하여 전분기 대비 하락 폭이 둔화
- 제조업ISM 지수, 소매판매, 수출 경기가 개선 추세를 나타내고 경기 선행지수는 6월에 100.9로 2달 연속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100을 상회

< 미국 주요 경제 관련 지표 >

(%, p)

	2008					2009				
	연간	1/4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경제성장률	0.4	-0.7	1.5	-2.7	-5.4	-6.4	-1.0	.	.	.
소매판매	-0.7	-0.5	0.4	-1.4	-6.6	-1.4	-0.4	-0.3	0.5	0.6
제조업ISM지수	.	49.0	49.5	43.4	32.9	36.3	.	40.1	42.8	44.8
산업생산	108.8	112.0	110.7	108.1	102.4	97.6	.	96.9	95.8	95.4
수출	6.2	5.1	12.3	3.0	-23.6	-30.6	-	-3.1	2.6	.
실업률	5.8	5.1	5.6	6.2	7.2	8.5	9.5	8.9	9.4	9.5
주택가격 증가율	.	-14.3	-15.9	-17.4	-18.6	-18.7	.	-18.1	-17.1	.
경기선행지수	.	102.0	102.1	100.6	98.9	97.9	100.9	98.9	100.2	100.9

- 주 : 1)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연율, 개인소비지출은 전기대비.
 2) 실업률, 주택가격 증가율, 경기선행지수는 3월, 6월, 9월, 12월의 수치임.
 3) 제조업 ISM 지수가 5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 국면, 50 미만이면 수축 국면을 의미.

○ (전망) 고용 회복, 주택시장 안정, 소비 증가 등이 이루어지는 2010년에 들어서야 본격 회복 국면 진입이 가능

- 고용시장 회복 : 취업자 감소 누계 증가, 고용률 하락, 실망실업자 증가 등으로 인해 고용시장 회복은 2010년 상반기에 가서야 가능
- 취업자 감소(누적) : 실업률은 7월에 9.4%에 달하고 비농업 취업인구는 2008년 1월~2009년 7월 기간 중 666만 4,000명 감소
- 고용률 감소 : 경제활동인구는 7월에 1억 5,450만 4,000명으로 여전히 전월 대비 감소세이고 고용률은 7월에 59.4로 2008년 7월에 비해 2.9%p나 하락
-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s) 증가¹⁾ : 비경제활동인구 중 실망실업자 수가 2009년 7월에 79만 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만 5,000명이나 증가. 향후 이들이 구직시장에 뛰어들면 실업률 증가 등 고용시장 악화 요인으로 작용

<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률 추이 >

(단위: 천명, %)

	2008년	2009년				
	7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경제활동인구	154,506	154,048	154,731	155,081	154,926	154,504
고용률	62.3	59.9	59.9	59.7	59.5	5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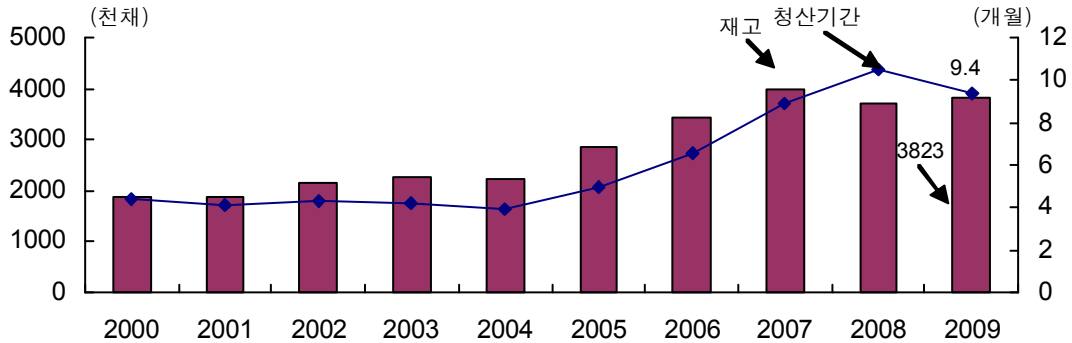
자료 :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 주택시장 안정 : 주택가격지수 추이, 주택시장 선행지표, 주택재고 물량을 고려할 때 2010년 상반기에나 주택시장은 안정적 회복권에 진입할 전망
- 가격지수 : S&P/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는 5월에 139.8로 전년동월대비 17.1% 하락, 2006년 7월 고점인 206.5 대비로는 32.3%나 급락
- 선행지수 : 주택시장 향방을 예고하는 주택시장지수(HMI)는 7월에 17로 반등 하였으나 2010년 상반기에 가서야 낙관적임을 의미하는 50이상을 기록할 전망
- 주택 재고 및 청산 기간 : 재고 물량(청산기간)은 2010년 상반기에 가서야 해소(축소)된 후 본격적인 회복이 시작될 전망²⁾
- 재고는 2009년 6월에 382만 3,000채(청산기간, 9.4개월)로 버블 이전인 2000년~2005년 기간 중 평균치인 220만 9,000채(4.3개월)를 100만채(4.4개월) 이상 상회하고 있어 2010년 상반기에 가서야 재고 물량이 해소 가능

1) 실망실업자를 포함한 경계노동자(the marginally attached to the labor force)는 2009년 7월에 228만 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0만 9,000명이나 증가.

2) 주택시장이 회복되더라도 모기지 등 파생상품 규제 증가 등으로 버블 이전 수준의 회복은 어려울 것임.

< 주택시장 재고 및 청산기간 >



자료 :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주 : 재고 및 청산기간은 각연도말, 2009년은 6월말 기준.

- 소비 증가 : 지속적인 소비 증가가 어려운 상황
 - 소매판매가 5월 0.5%, 6월 0.6%로 플러스로 전환
 - 고용시장 부진으로 인해 가계 소득이 위축되고 있어 향후 소비 증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성장률 전망 : 주요 기관의 성장률 전망에 의하면 2010년에 소폭의 플러스 성장 예상
 - IMF에 따르면 미국은 '09년 -2.6%, '10년에 0.8%의 성장을 예상('09.7월)
 - OECD는 미국이 2010년에 0.0%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09년 3월)

< IMF와 OECD의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

(%)

	2008년	OECD ('09년 3월)		IMF('09년 7월)	
		2009년(E)	2010년(E)	2009년(E)	2010년(E)
미국	0.4	-4.0	0.0	-2.6	0.8

자료 :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July 2009.

2) OECD, *Economic outlook*, March 2009.

○ (현안) 향후 재정 적자 누적이 경기 회복 장애 요인으로 작용

- 재정적자는 2008년 GDP 대비 3.2%(4,590억 달러)를 기록 이후 증가세
- 경기부양 지속으로 인한 재정적자 규모가 2009년에 GDP 대비 13%(1조 8,250억 달러), 2010년 9.9%(1조 4,3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³⁾

2. 중국 내수 경기 회복은 지속될 수 있나?

- 정부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 등으로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중국 경제는 내수 중심 성장의 한계에 봉착할 전망

○ (현황) 소매판매, 고정자산 투자 증가, 광공업 생산 지수도 상승세 전환으로 경제 성장률 증가폭이 확대

-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의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가 증가함으로써 경제 성장률이 2009년 1/4분기에 6.1%에서 2/4분기에 7.9%로 상승
- 소매판매와 고정자산투자는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광공업 생산 개선

< 중국 주요 경제 관련 지표 >

(%, p)

	2008					2009					
	연간	1/4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경제성장률	9.0	10.6	10.1	9.0	6.8	6.1	7.9
소매판매	21.6	20.6	22.2	23.2	20.6	14.9	15.0	14.8	15.2	15.0	15.2
고정자산투자	26.1	25.9	26.8	27.6	26.1	28.6	33.6	30.5	32.9	33.6	.
광공업 생산지수	.	58.4	52.0	51.2	41.2	52.4	53.2	53.5	53.1	53.2	53.3
산업생산	12.9	16.4	15.9	13.0	6.4	5.1	9.0	7.3	8.9	10.7	.
수출	17.2	21.4	22.4	23.0	4.3	-19.7	-23.5	-22.6	-26.4	-21.4	-23.0
경기선행지수	.	102.7	101.3	96.8	92.4	93.7	97.7	94.9	96.3	97.7	.

자료 : 한국은행,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인민은행, OECD.

주 : 1)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임.

2) 광공업생산 지수는 3월, 6월, 9월, 12월의 수치임.

3) 경기선행지수는 OECD 선행지수 (분기별 자료는 3월, 6월, 9월, 12월 수치)임.

3) 미국 예산정책처, 2009년 7월.

○ (전망) 재정 지출 증가로 인한 고정자산 투자, 소매판매 증가는 향후 성장세 유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국가 경기 부양책 지속

- 중국 정부는 2009년 초에 기존 인프라 투자에 더하여 내수 부양을 위한 가전제품과 자동차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 10대 산업진흥계획 등의 추가적 부양책을 확대

- 고정자산 투자 증가

- 고정자산 투자는 6월에 33.6%로 3개월 연속 30% 이상을 기록
- 경기 부양으로 인한 사회 인프라 투자 증가 등으로 고정자산 투자는 6월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소매 판매 증가

- 소매판매는 3월 14.7%, 4월 14.8%, 5월에 15.2%로 높은 수준을 유지
-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제고 정책으로 소매판매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

- IMF와 OECD 전망 및 경기선행지수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에 본격 회복

- 중국 경제는 2009년에 7% 내외 성장한 후 2010년에 8.5% 성장할 것으로 전망(IMF, OECD)
- 경기선행지수도 2009년 6월에 97.7로 1월의 92.1 이후 5개월 연속 상승

< IMF와 OECD의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 (%)

	2008년	OECD ('09년 3월)		IMF('09년 7월)	
		2009년(E)	2010년(E)	2009년(E)	2010년(E)
중국	9.0	6.3	8.5	7.5	8.5

자료 :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July 2009. 2) OECD, *Economic outlook*, March 2009..

○ (현안) 다만 수출 부진, 자산 버블 형성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수출은 2009년 6월에 -21.4%, 7월에 -23.0%로 4개월 연속 20%대의 감소를 기록하고 글로벌 무역 부진으로 급속히 호전될 가능성은 낮음

- 정부 소유 은행의 대출 증가로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 및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어 자산 가격 버블 형성 가능성이 커짐

- 주식과 주택 가격은 장기균형 값과 비교할 때 확장기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 (“<참고> 중국 자산 버블 형성 가능성”에 상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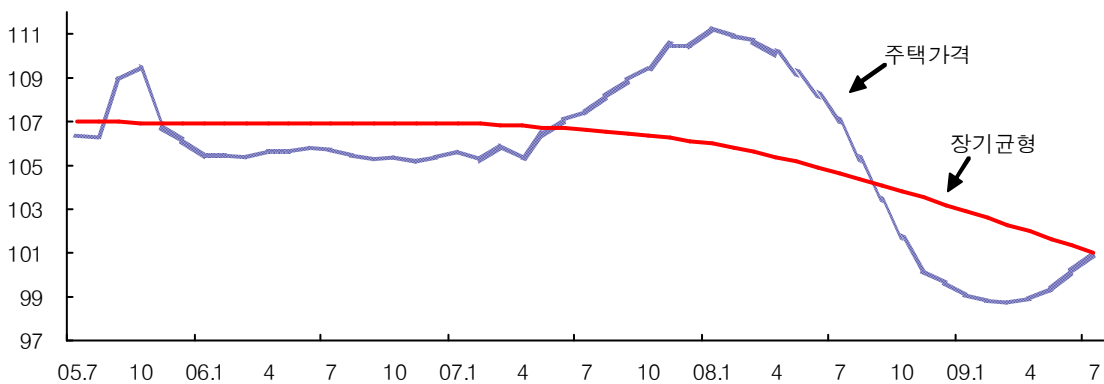
- 경제 위기로 주식가격은 2008년 11월 4일에 1706.7까지 폭락하였다가 2009년 2월 16일 2389.4까지 급등. 최근에는 2009년 8월 4일에 3471.4로 다시 급등하였다가 하락하여 8월 19일에는 2785.6을 기록

<참고> 중국 자산버블 형성 가능성

- 주택시장 버블 진입 가능성

- 주택가격은 15개월간의 확장기간(2007년 6월 ~ 2008년 8월) 이후 주택시장 침체로 수축기간(2008년 9월~2009년 7월)에 진입. 향후 유동성 자금 유입 지속 등으로 다시 확장 기조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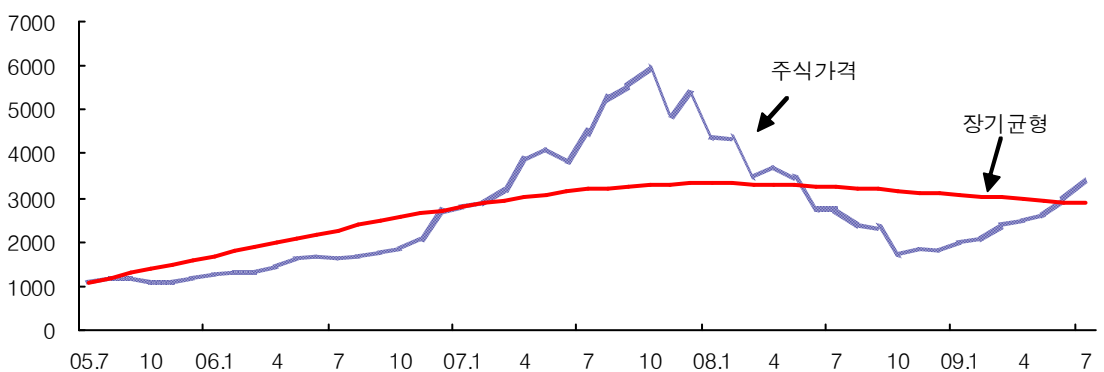
< 중국 주택가격 및 장기균형값 추이 >



- 주식시장 버블 우려 증대

- 경기 순환으로 인한 확장기간(2007년 3월~2008년 5월, 수축기간(2008년 6월~2009년 5월) 이후 2개월 연속 확장기조에 다시 진입

< 중국 주식가격 및 장기균형값 추이 >



주 : 1) 주택, 주식 가격 모두 Reuters 자료 활용.
 2) 장기균형값은 Hodrick-Prescott filtering을 이용하여 추정.

3. 일본 장기 침체 가능성은 있나?

- 최근 정부 재정 지출 증가 등으로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나 내수 침체가 지속될 경우 경기 침체 국면에 다시 진입할 가능성도 존재

○ (현황) 최근에 들어 감소 성장에서 미약하나마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 경제 성장률이 2009년 2/4분기 0.9% 상승으로 전환
- 경제 성장률이 2008년 2/4분기 -1.1%를 기록한 후 2009년 1/4분기 -3.1%까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4분기는 0.9% 성장
- 광공업 생산은 2009년 6월에 80.9로 2월의 69.5 이후 4달 연속 상승
- 경기선행지수도 2009년 6월에 79.9로 2월의 74.1을 기록한 이후 4달 연속 상승세를 유지

< 일본 주요 경제 관련 지표 추이 >

(%, p)

	2008					2009				
	연간	1/4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경제성장률	-0.7	1.0	-1.1	-1.0	-3.5	-3.1	0.9	-	-	-
광공업 생산	-	108.7	107.1	103.6	85.3	70.6	81.0	74.8	79.1	80.9
소매판매액	0.3	1.0	0.3	-0.3	-2.7	-3.8	-3.0	-2.8	-2.7	-3.0
수출	-3.5	5.9	1.8	3.2	-23.1	-46.9	-35.7	-39.1	-40.9	-35.7
경기선행지수	-	91.3	90.6	88.9	78.7	75.5	79.8	76.2	76.9	79.9
단칸지수	-	2	-3	-11	-25	-57	-55	-	-	-

자료 : 한국은행, 일본 내각부, OECD.

주 : 1)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임. 광공업 생산 지수(2005=100).

2) 소매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분기자료는 3월, 6월, 9월, 12월 수치임.

3)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 일본 단칸지수는 분기별 자료. 일본 경기선행지수는 3월, 6월, 9월, 12월 수치(2005=100).

○ (전망) 수출 급감, 소매 판매 둔화로 일본 경제의 경기 회복 속도는 느릴 것으로 예상

- 수출 급감 지속

- 2008년 기준으로 일본 GDP의 15.9%를 차지하는 수출은 2009년 6월에 전년 동월대비 35.7%로 4개월 연속 40% 내외의 마이너스 증가율 기록
-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 둔화로 수출 부문의 급격한 개선은 어려운 상황

- 소매판매 저조

- 소매판매는 6월에 -3.0%로 2008년 3.4분기 이후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
-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임금 및 고용 여건 악화로 소매판매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경기선행지수와 단칸지수 개선 미흡

- 경기선행지수는 6월에 79.8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기준치인 100을 여전히 하회
- 단칸지수는 2009년 2/4분기에 -55로 여전히 전체 산업 현황 개선 미흡

- 일본 경제는 2009년에 -6.0%대의 감소 성장을 하고 2010년에 -0.5%(OECD, '09.3월) ~ 1.7%(IMF, '09.7월)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IMF와 OECD의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 추이 > (단위: %)

	2008년	OECD ('09년 3월)		IMF('09년 7월)	
		2009년(E)	2010년(E)	2009년(E)	2010년(E)
일본	-0.7	-6.9	-0.5	-6.0	1.7

자료 :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July 2009. 2) OECD, *Economic outlook*, March 2009.

○ (현안) 정부 재정 지출 여력이 악화된 상황에서 내수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경우 장기 침체 국면에 다시 빠져들 우려도 존재

- 일본의 재정 지출 여력 한계

- 일본의 재정적자는 2010년에는 미국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정부 부채는 지속적인 증가 전망
- IMF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0년에 GDP대비 10.3%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전망
- 일본 정부 부채는 2009년에 GDP대비 217.4%, 2010년에는 226.2%에 달할 것으로 보여 재정 지출 증대를 하는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일본 등 주요국 재정 수지 적자 및 정부 부채 현황 및 전망 >

		2007년	2008년	2009년(E)	2010년(E)
재정 적자	일본	-2.5	-5.6	-10.3	-10.3
	미국	-2.9	-6.1	-13.5	-9.7
	영국	-2.6	-5.4	-11.6	-13.3
	G20 선진국	-1.9	-4.3	-10.2	-8.7
정부 부채	일본	187.7	196.3	217.4	226.2
	미국	63.1	70.5	88.8	99.8
	영국	44.1	51.9	68.6	82.2
	G20 선진국	78.8	83.4	100.6	109.7

자료 :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09.

2) IMF, *Fiscal Implications of the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June 2009.

3) IMF, *The State of Public Finance: A Cross-Country Fiscal Monitor*, July 2009.

주 : 수치는 GDP 대비 비중(%).

- 내수 부진 심화

- 소매판매는 2009년 6월에 전년동월대비 -3.0%로 2008년 9월부터 감소 지속
- 민간건설 수주액은 2009월에 6월에 전년동월대비 -32.2%로 2008년 11월부터 마이너스 증가율 지속
- 민간기계 수주액은 2009년 6월에 전년동월대비 29.7%로 2008년 7월부터 마이너스 증가율 지속

4. 유럽발 금융 불안은 실현되는가?

- 서유럽 은행의 부실이 지속되는 가운데 동유럽 국가 파산으로 대출 자산이 연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유럽의 금융 불안 가능성은 높은 상황

○ (현황) 제조업 PMI 지표 등이 상승되는 반면 소매판매 등 주요 실물경제 지표는 여전히 미약

- 경제 성장률이 2008년 2/4분기 -0.3%에서 2009년 1/4분기 -2.5%로 지속적으로 악화
- 제조업 PMI 지수는 개선되고 있으나 소매판매 부진, 실업률은 상승 지속

< 유로지역 주요 경제 관련 지표 >

(%, p)

	2008					2009				
	연간	1/4	2/4	3/4	4/4	1/4	3월	4월	5월	6월
경제성장률	0.7	0.7	-0.3	-0.3	-1.8	-2.5
소매판매	-0.8	.	.	-0.5	-0.8	-0.9	-0.1	0.2	-0.4	.
제조업 PMI	46.5	.	.	46.6	36.8	34.0	33.9	36.8	40.7	42.6
산업생산	-1.8	.	.	-2.9	-6.3	-7.5	-1.0	-1.4	0.6	.
수출	3.7	.	.	0.2	-8.2	-15.2	1.2	-0.7	-2.7	.
실업률	7.5	7.2	7.4	7.7	8.2	9.0	9.0	9.2	9.3	9.4
소비자물가	3.3	3.6	4.0	3.6	1.6	0.6	0.6	0.6	0.0	-0.1
생산자물가	5.9	5.6	7.7	7.6	1.2	-2.9	-2.9	-4.6	-5.8	.
경기선행지수	.	102.2	100.3	97.1	94.1	94.7	94.7	95.8	97.2	98.7

자료 : 한국은행, ECB, eurostat, OECD.

주 : 1) 경제성장률과 수출은 전기대비.

2) 제조업 PMI 기준치는 50. 물가는 전년동기대비(3, 6, 9, 12월 자료) 수치임.

3) 실업률은 3월, 6월, 9월, 12월 수치임.

4) 경기선행지수는 OECD 선행지수(분기별 자료는 3월, 6월, 9월, 12월의 수치)임.

○ (전망) 실물 활동 지표 개선이 미약하여 유로 경기는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릴 것으로 예상

- 고용시장 악화 지속 : 유럽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
 - 실업률이 2008년 12월 8.2%에서 2009년 5월에는 9.4%로 상승
 - 유럽의회(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실업률은 11%대까지 이를 것으로 보여 고용시장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전망
 - 개별 국가로는 실업률이 2009년 6월에 스페인 18.1%, 아일랜드 12.2%로 회원국 내 심한 편차를 보여 유럽 경제 회복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

< 유럽내 주요국 실업률 추이 >

(%)

	2008년	2009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유럽	8.2	8.5	8.8	9.0	9.2	9.3	9.4
스페인	14.7	15.6	16.5	17.2	17.6	17.9	18.1
아일랜드	8.2	9.3	10.3	11.0	11.5	12.0	12.2
프랑스	8.4	8.6	8.8	9.0	9.1	9.3	9.4
포르투갈	8.2	8.5	8.8	9.1	9.3	9.3	9.3
오스트리아	4.2	4.2	4.3	4.4	4.3	4.4	4.4
네덜란드	2.8	2.8	2.9	3.1	3.2	3.2	3.3

자료 : OECD.stat Extracts.

- 소매판매 부진
 - 2009년 5월에 -0.4%로 1/4분기 부터 부진한 양상을 보임
 - 고용시장 악화는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소매판매는 향후에도 부진이 예상된다
- 주택가격 하락 :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負의 자산효과가 나타나 소비축소 등 경기 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
 - 유럽의 주택가격은 2009년 1/4분기에 -5.1%로 2008년 4/4분기부터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회원국 내 아일랜드(-9.8%), 스페인(-6.8%), 프랑스(-6.6%), 네덜란드(-0.3%)가 상대적으로 높은 감소율을 기록

< 유럽내 주요국 주택가격 추이 >

(전년동기대비, %)

	2008년				20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유럽	3.5	2.4	0.4	-2.4	-5.1
아일랜드	-8.6	-9.4	-10.0	-9.7	-9.8
스페인	3.8	2.0	0.4	-3.2	-6.8
프랑스	4.3	3.0	0.8	-3.0	-6.6
네덜란드	4.2	3.1	2.8	1.7	-0.3
오스트리아	2.1	-0.2	0.7	2.5	4.3
포르투갈	2.3	4.0	4.8	4.7	2.7

자료 : 1) ECB(European Central Bank), *Financial Stability Review*, June 2009.
2) Financial Times DB.

- IMF의 전망에 따르면 유럽 경제는 2010년에도 여전히 부진할 전망
- IMF는 유럽 경제가 2010년에 -0.3% 성장할 것으로 전망

< IMF와 OECD의 유럽 경제성장률 전망 추이 >

(%)

	2008년	OECD ('09년 3월)		IMF('09년 7월)	
		2009년(E)	2010년(E)	2009년(E)	2010년(E)
유럽	0.7	-2.4	-	-4.8	-0.3

자료 :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July 2009.
2) OECD, *Economic outlook*, March 2009.

○ (현안) 경기 회복이 느린 가운데 동구권 경제의 경기 침체 심화가 서유럽 은행 부문의 부실 확대로 이어지는 유럽발 금융 위기 발발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

- 유럽 은행 부실화 : 유럽 은행은 유로지역 GDP의 106.4%인 14조 5,090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 이들 대출금 중 4.5%에 해당하는 6,490억 달러가 손실로 추정됨
 - 현재 실현된 손실은 대출금의 1.6%인 2,380억 달러 수준
 - 또한 은행 부실 원인 중의 하나인 주택관련 투자가 주택시장 부진으로 저조. 유럽의 주택가격이 여전히 하락하고 있고 일부 국가는 심각한 하락폭을 나타내고 있어 은행 부실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유럽 은행 부실 규모 >

(단위: 억달러, %)

총대출	추정손실	실현손실
145,090(106.4)	6,490(4.8)	2,380(1.7)

자료 : 1)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April 2009.

2) Posen, Adam and Veron, Nicolas, A Solution for Europe's Banking Problem,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June 2009.

주 : () 안은 유로지역 GDP(2008년) 대비 비중.

- 동구권 국가 파산 도미노 위험 고조 : 동구권 국가의 실물 및 금융 상황 악화로 인한 국가 파산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에 서유럽 은행 대출 자산이 연쇄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큼

· **對동유럽 총대출** : 서유럽 은행의 동유럽 국가에 대한 대출 규모는 1조 938억 달러에 달함. 이 중 최대 2,251억 달러(총대출의 20.6%)까지 손실이 예상. 특히 대출 규모가 오스트리아는 GDP 대비 55.5%, 벨기에 23.0%, 스웨덴 21.4%에 달함

· **對발틱 3국 대출** : 서유럽 은행은 에스토니아에 2008년 에스토니아 GDP 대비 149.6%(347억 달러), 리투아니아에 72.3%(342억 달러), 라트비아에 95.3%(324억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의 자금을 대출

※ 발틱 3국의 2009년 2/4분기 성장률은 -20% 내외로 악화

※ 발틱 3국은 2008년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11.6%에 달함. 국별 적자 규모는 에스토니아는 9.2%, 라트비아는 13.2%, 리투아니아는 11.6%. 경제 상황 악화로 수출 증대를 위한 통화절하는 대출 자산 상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임

· 특히 스웨덴의 경우 총대출금 1,109억 달러의 78%(866억 달러)가 발틱 3국에 집중되어 있어 발틱3국 파산으로 인한 도미노 위험에 노출

< 서유럽 주요 은행의 동유럽 대출 및 잠재 부실 현황 > (단위: 억 달러)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네덜란드	총계
총 대출		2,463 (55.5)	1,818 (4.6)	1,806 (7.3)	1,474 (4.8)	1,261 (23.0)	1,109 (21.4)	1,007 (10.9)	10,938 (9.3)
잠재 손실	최소	156(3.5)	102(0.3)	105(0.4)	90(0.3)	65(1.2)	102(20.2)	58(0.6)	678(0.6)
	최대	494(11.1)	372(0.9)	371(1.5)	289(0.9)	200(3.6)	314(6.1)	211(2.3)	2,251(1.9)
발틱 3국	에스토니아	3	11	4	1	1	327	0	347
	리투아니아	3	38	7	4	1	289	0	342
	라트비아	8	48	14	4	0	250	0	324

자료 : Financial Times DB.

주 : 1) () 안은 해당 국가의 GDP 대비 비중

2) 대출대상 동유럽 국가는 발틱3국, 폴란드, 체코, 러시아,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벨라루스 12개국.

5. 중동 건설경기 붐은 재현되나?

- 원유 가격 상승 가능성, 프로젝트 추진 증가 등으로 건설 시장 회복 가능성은 높은 상태임

○ (현황) 중동 경기는 부진하였으나 사회인프라, 중저가 건설 투자는 활발히 진행 중

- 중동 경제는 2009년 전반기에 주요 국가들이 부진세를 기록
 - 중동 지역의 2009년 경제 성장률은 사우디아라비아 -0.9%, 아랍에미리트 -0.6%, 쿠웨이트 -1.1% 등 부진 예상
 - 걸프 지역의 프로젝트는 2009년 7월말 현재 2조 6,196억 달러 규모로 전년 동월대비 12.8%나 상승

< IMF의 중동 국가 경제성장률 전망 >

(%)

	2007년	2008년	2009(E)		2010(E)	
			'09년4월	'09년7월	'09년4월	'09년7월
이란	6.2	5.6	2.2	-	3.7	-
사우디아라비아	3.5	4.6	-0.9	-	2.9	-
아랍에미리트	6.3	7.4	-0.6	-	1.6	-
쿠웨이트	2.5	6.3	-1.1	-	2.4	-

자료 :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July 2009.

2) 한국은행, Ecos.

< 걸프만 지역 프로젝트 현황 >

(단위 : 억달러)

	계획 및 진행 중			보류 중
	2009년 7월 기준	2008년 7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2009년 7월 기준
바레인	609	399	52.3	59
쿠웨이트	267,1	2,671	0.0	401
오만	93,8	926	1.2	122
카타르	2,119	2,107	0.5	79
사우디아라비아	5,958	494,0	20.6	382
아랍에미리트	9,183	9,116	0.7	4062
걸프협력회의	21,478	20,162	6.5	5,108
이란	313,8	234,6	33.8	31
이라크	1579	70,8	122.8	52
걸프지역 총계	26,196	23,217	12.8	5,191

자료 : MEED Projects -CMI

○ (전망) 원유 가격 상승, 프로젝트 추진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0년에는 경제가 회복되면서 건설 프로젝트는 증가 추세가 이어질 전망

-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기 회복세 지속 가능성 존재
 - 원유가격은 점진적 글로벌 경기 회복, 공급 부족 등으로 2010년에 배럴당 평균 88달러(두바이유)까지 상승 가능성 존재

< 두바이 유가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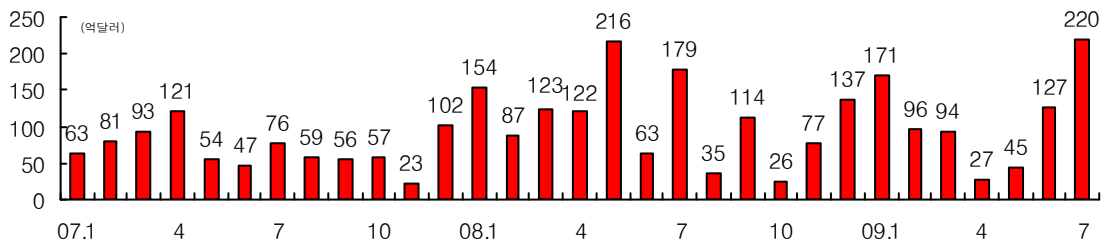
	2008년	2009년					2010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	
고유가	94	45	59	75	80	65	88
기준유가				65	66	59	63
저유가				60	61	56	47

자료 : CERA(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美캠브리지에너지 연구소), 2009.07.24.

- 프로젝트 추진 증가

- 세계 경기 회복 조짐에 따라 중동지역 월별 프로젝트 계약 금액 규모는 2009년 7월에 220억 달러로 31개월래 최고 수준을 기록
- 보유 금융자산을 이용한 내수 제고 정책 추진으로 향후에도 프로젝트 추진은 증가세 유지 전망

< 중동지역 프로젝트 계약 현황 >



자료 : MEED DB.

- 중동 경제는 2010년에 3.7%(IMF, '09.7월)로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

< IMF의 중동 경제성장률 전망 추이 >

(%)

	2008년	'09년 4월		'09년 7월	
		2009년(E)	2010년(E)	2009년(E)	2010년(E)
중동	5.2	2.5	3.5	2.0	3.7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 July 2009.

III. 시사점과 과제

1) 시사점

○ (세계 경기 회복 전망)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미국, 유럽 등의 경기 회복이 미흡하여 세계 경기는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기 어려울 전망

-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각국의 비중을 보면 미국은 2008년 GDP 기준으로 23.5%, 유로지역 22.5%, 일본 8.1%, 중국 7.3%, 중동 3.0%, ASEAN-5 2.1%, 인도 2.0%, 한국 1.6% 순임
-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미국, 유로지역, 일본 등의 경기 회복이 미흡하여 세계 경기는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임

<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주요국 경제 비중 추이 >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미국	31.9	31.7	29.6	28.0	27.5	27.0	25.2	23.5
유로지역	20.0	21.0	23.0	23.4	22.5	22.0	22.4	22.5
일본	12.9	11.9	11.4	11.0	10.1	8.9	8.0	8.1
중국	4.2	4.4	4.4	4.6	5.0	5.5	6.2	7.3
중동	2.0	1.9	1.9	2.0	2.3	2.5	2.5	3.0
인도	1.5	1.5	1.5	1.6	1.7	1.8	2.0	2.0
ASEAN-5	1.5	1.6	1.6	1.6	1.7	1.9	2.0	2.1
한국	1.6	1.7	1.7	1.7	1.9	2.0	1.9	1.6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09.

○ (국내 수출에 대한 영향) 세계 경제의 경기 회복 지연으로 국내 수출 경기의 빠른 회복은 어려울 전망

- 세계 경제는 2010년에 가서야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회복에는 부정적으로 작용
- 특히 미국과 유럽의 경기 회복 미약으로 큰 폭의 수출 증가가 힘들 것으로 예상
 - 한국의 총수출 중 유럽은 2008년 기준으로 18.2%로 두번째, 미국은 11.0%로 세번째 순위
- 다만 한국의 총수출 대비 2008년 기준으로 2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경기 회복은 수출 증대의 주요인으로 작용
 - 경기 회복이 빠른 인도는 한국의 총수출 대비 2.1%(2008년)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인도 포괄적 동반자 협정' 체결 효과로 인도에 대한 수출은 늘어날 전망
 - 중동 경기 회복으로 이 지역에 대한 수출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예상

< 한국의 대주요국 수출 비중 추이 >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중국	12.1	14.6	18.1	19.6	21.8	21.3	22.1	21.7
유럽	15.9	16.6	16.5	17.6	18.6	18.5	19.2	18.2
미국	20.7	20.2	17.7	16.9	14.5	13.3	12.3	11.0
일본	11.0	9.3	8.9	8.5	8.4	8.2	7.1	6.7
중동	4.7	4.6	4.4	4.3	4.3	4.4	5.3	6.3
인도	0.9	0.9	1.5	1.4	1.6	1.7	1.8	2.1

자료 : 한국 무역협회 DB.

2) 과제

○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의 실행으로 본격적 국내 경기 회복 유도

- 경기가 완전히 회복세로 전환될 때까지 투자 증대, 고용 창출 등을 위한 저금리, 재정 지출 확대책 유지

- 본격적 경기 회복 양상이 가시화 되기 까지 현행 저금리 정책 유지
- 신성장동력산업 R&D투자 세액공제를 상향 조정 등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대책 지속 추진

○ 지역별로 다른 경기 회복 속도를 감안하여 수출 전략을 수립

- 중국, 인도 등 경기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에 대한 수출 마케팅 강화
 - 중국, 인도 현지 소비 트렌드를 파악하여 이에 맞는 수출 진흥 대책 수립
- 한편, 경기 회복 속도가 미진한 미국, 유럽에 대한 수출 감소 폭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 강구
 - 한-미, 한-EU FTA 추진 속도를 높이고, 이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 특히 중동 지역 경기 활성화에 대비한 건설 수주 확대 전략 수립

○ 유럽 금융 불안에 대비하여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필요

- 국제 금융 시장 불안에 대비하여 충분한 외환 보유고 확보
 - 외환보유고의 적정 규모에 대한 기준을 국내 실물, 자본 거래 규모 증대에 맞추어 새롭게 설정해야 할 것임
- 세계 금융 시장 변동에 대비한 '위험 경고 시스템'을 지속 가동하고 다양한 금융 리스크 관리 기법을 개발
 - 특히 중소기업 등이 환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환위험 관리 교육 강화 등이 필요

임희정 연구위원 (3669-4031, limhj9@hri.co.kr)
김민정 연구위원 (3669-4457, kimmj@hri.co.kr)
정유훈 선임연구원 (3669-4014, youhun@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년				2009년		2009 (E)
				1/4	2/4	3/4	4/4	1/4	2/4	
미국	2.7	2.1	0.4	-0.7	1.5	-2.7	-5.4	-6.4	-1.0	-2.6
EU	2.9	2.7	0.8	0.6	-0.2	-0.2	-1.6	-2.5	-	-4.8
일본	2.0	2.3	-0.7	4.0	-4.3	-3.9	-13.1	-11.7	3.7	-6.0
중국	11.6	13.0	9.0	10.6	10.1	9.0	6.8	6.1	7.9	7.5
한국	5.2	5.1	2.2	5.5	4.3	3.1	-3.4	-4.2	-2.5	-3.0

주 1) : 2008년, 2009년 1/4분기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정치(P), 2009년 전망치(E)는 IMF 2009년 7월 기준임.

2) :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7년 말	2008년 말	2009년				전주비	
			3월말	6월말	8월 14일	8월 21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4.02	2.21	2.66	3.54	3.57	3.43	-0.14%p
	엔/달러	112.58	90.22	97.34	96.14	94.68	94.21	-0.47¥
	달러/유로	1.4722	1.4125	1.3190	1.4083	1.4177	1.4257	0.0080\$
	다우존스지수	13,265	8,776	7,609	8,447	9,321	9,350	29p
	닛케이지수	15,380	8,860	8,110	9,958	10,597	10,238	-359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5.74	3.41	3.94	4.16	4.61	4.32	-0.29%p
	원/달러	936.1	1,259.5	1,383.5	1,273.9	1,239.2	1,249.7	10.5원
	코스피지수	1,897.1	1,124.5	1,206.3	1,390.1	1,591.4	1,581.0	-10.4p

주 : 8월 21일 해외 지표는 전일(8월 20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7년 말	2008년 말	2009년				전주비	
			3월말	6월말	8월 14일	8월 21일		
국제 유가	WTI	95.97	44.61	49.65	69.08	67.34	72.41	5.07\$
	Dubai	89.30	36.45	46.80	71.85	72.60	72.73	0.13\$
CRB선물지수	358.71	229.54	220.40	249.96	257.32	256.93	-0.39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